“비대면 홍보 강화로 장기기증 등록 확대”

생명나눔, 1월 17일 간담회서 신년계획 발표

코로나19로 대면 활동 저조
조혈모 등록, 혈액카페 활용
장기기증 등록, 온라인 모집
MZ세대 대상으로 홍보 강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월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신년계획을 밝히고 있다. 스님은 이날 비대면 홍보강화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확대할것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로 조혈모세포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비대면 홍보를 강화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나선다.

장기기증을 비롯한 의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월 17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시대를 감안해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MZ세대 감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생명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부대 및 대학 내 외부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면으로만 등록 가능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생명나눔은 안내문서와 비대면 교육을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생명나눔은 올해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모집 목표를 2300명으로 설정, 60명을 실기증자로 연계할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한마음 혈액원 헌혈카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헌혈카페 최대 3개소에 홍보 부스를 설치, 헌혈자를 대상으로 희망등록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과 연계돼 있는 전국 80여 개 간호대학에 조혈모세포 희망프로젝트 안내 문서를 발송하고 비대면 교육을 강화해 희망등록자 수를 대폭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대비율 40%대에 머무르며 저조한 성과를 거뒀던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을 강화키로 했다. 법인 공식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활동가를 모집,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동호회 및 지역 맘카페에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 장기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등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나눔은 인력을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청년인턴 채용을 통한 MZ세대에 맞는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나눔을 주제로 틱톡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등을 활용해 MZ세대 감성에 맞는 홍보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청년인턴 채용은 국내 청년 일자리 마련 및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공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발굴해 신규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 진행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저소득 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올해부터 실시하며 수도권 지역 학교들과 업무협약 확대, 환자치료비 지원금 증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일면 스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일상이 팍팍해지고 힘든 한해였음에도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열정은 쉼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불교계에서 생명나눔을 대표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 코스맥스 불교문화 기반 상품개발

18일 산학협력 교류 협약 체결


(사진 왼쪽부터)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가 뷰티 기업과 손잡고 불교문화를 기반한 화장품 제작에 나선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월 18일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기업 코스맥스(회장 이경수)와 ‘산학협력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을 비롯해 심상배 부회장, 박명삼 부사장, 강승현 상무, 이준배 이사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에서는 윤성이 총장과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김관규 연구부총장, 임대운 연구처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학공동연구 △불교 기반 산학협력 모델 창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상호 간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동국대의 사회적 책무와 코스맥스의 사회적 · 윤리적 기여를 다하기 위한 ESG 경영도 함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사업화 모델을 발굴해 동국대 건학이념 구현과 코스맥스의 한국 전통문화 기반 사업화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함께 협약식 이후 이경수 회장은 화장품 공학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1억 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공과대학 화공생물공학과 등 4개 학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동국대의 연구 및 문화역량과 코스맥스의 ‘헬스&뷰티’ 기술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 K-뷰티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이 총장은 “동국대가 또 불교계가 가진 많은 자원을 활용해 코스맥스와 함께 제품 개발 및 연구, 마케팅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공적인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경수 회장의 장학금 기부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달해주신 장학금은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성민 기자

“여성개발원, 공의없이 탈종단 결정”

이주현 부원장 등 1월 18일 기자회견서 주장

포교원 ‘정관 개정’ 요구 거부한
여성개발원 결정, TF독단 지목
“총회 열고 회원 공의 모아달라”

사무국 “다양하게 의견수렴했다”
포교원 “공의 없는 결정에 유감”

최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포교단체 해지를 통보받은 불교여성개발원 내부에서 해지사태를 초래한 ‘정관 개정 불가’ 결정이 일부의 독단이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현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과 문명하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이혜경 위즈덤 합창단 부단장 등은 1월 18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지홍 스님과의 갈등 과정에서 투쟁했던 강경한 사람들로 구성된 TF팀이 개발원을 본질에서 벗어나 탈조계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불교여성개발원의 포교단체 해지까지의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TF팀이 2021년 10월 7일 첫 대면회의를 했으며, 그후 몇차례 회의 후 단톡을 이용해 회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운영위나 이사회, 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TF팀 회의결과에 따라 정관변경을 할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음을 밝혔다.

이 부원장은 “정관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탈조계종단을 의미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일반 회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지당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부원장의 메시지를 본 여성개발원 108인회 회원들은 단톡에 항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명하 불교여성개발원 이사(108인회 위즈덤합창단장)도 “뉴스에서 해지 내용을 접했다. 이사회, 총회를 열지 않고, 해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엄청난 일을 겪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혜경 108인회 위즈덤합창단 부단장도 “여성불자의 능력 발현을 위해 회원들이 봉사하고 있다. 포교단체 해지까지 이렇게 TF가 운영됐는지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부원장은 “TF회의서 설문조사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언성을 높이는 인사들로 유야무야됐다. 지금이라도 총회 등을 통해 여성개발원 회원들의 공의를 수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은 1월 18일 홈페이지의 ‘불교여성개발원의 포교원 포교단체 해지 관련 입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23일 전임원장회의, TF와 운영위원 간담회를 통해 정관변경 불가 결론을 내렸다”며 “이사들과도 단톡방을 통해 공유했고, 김선옥 원장이 포교원회의서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은 여성불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관회복을 하지 않겠다고 보낸 공문 내용이 이사회나 총회 결의가 아닌 TF팀 결정이었음에 깊은 유감”이라며 “정관회복시 언제든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의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보 불교문화재 2점 경매나왔다

계미명금동삼존불상 등
K-옥션에 경매로 나와
간송미술관 재정난 원인
27일 경매… 향방 주목


두 새겨진 일광삼존(一光三尊) 양식으로, 국보 ‘동신묘명삼존불’과 닮은 점이 많다. 광배 뒷면에 새겨진 글에 따르면 백제 위덕왕 10년(563)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불교문화재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금동삼존불감이 경매로 나왔다. 국보가 경매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송미술관은 1월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보 2점 매각을 진행하려 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소장품의 매각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간송미술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까닭은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은 6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호신불로 유행한 금동삼존불상이다. 높이 17.7㎝ 크기로, 추정가는 32억~45억원이다. 한 광배 안에 주불상과 양쪽으로 협시보살이 모

금동삼존불감은 높이 18㎝ 크기로, 사찰 내부에 조성된 불전을 축소해놓은 듯한 형태다.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의 목조건축 양식과 조각 수법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경매는 1월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진행된다. 현재 경매 추정가는 28~45억 선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응찰할 가능성이 높으나 한해 문화재 구입 예산이 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구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